

복면 쓴 가수가 누굴까? ‘궁금증’이 매력이다

MBC ‘복면가왕’ 가면 쓰고 노래대결 화제 2연승 ‘황금라카...’ 정체 밝히기 관심 폭증 실력 갖춘 노래와 가수 맞는 재미도 쏠쏠

복면의 주인공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8명의 가수가 복면을 쓰고 정체를 숨긴 채 노래 대결을 펼치는 MBC ‘일밤-복면가왕’ (복면가왕)이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독특한 콘셉트 덕분이다. 우선 출연진의 면면이 화려하다. 서바이벌 형식에서 탈락한 참가자들이 가면을 벗고 드러내는 얼굴을 보면 전혀 뜻밖의 인물들이다.

가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연기자, 개그맨, 뮤지컬배우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실력파라는 데 시청자도 동의한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록과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까지 장혜진, 김중서, 나비, FT아일랜드 이홍기, 지나, 전 리듬제조 선수 신수지, 연기자 박광현, 현우, 김지우, 개그맨 정철규 등이 가면 뒤에서 실력을 뽐내 화제를 모았다. 물론 재미의 또 다른 핵심은 해당 주인공을 맞히는 과정이다. 평소 노래하는 습관이나 목소리, 발성 등 단서로 시청자와 누리꾼은 실

시간 SNS를 통해 주인공을 유추한다. 또 우승자의 정제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 공개돼 프로그램이 막을 내릴 때까지 시청자를 TV 앞에 잡아둔다. 실제로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26일까지 2연승을 달리고 있는 ‘황금라카 두통췌네’를 찾는 글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청중평가단과 함께 나선 심사위원들까지도 출연자들의 정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방송인 김구라, 작곡가 김형석 등은 출연자들과 오랜 친분이나 곡 작업 등으로 호감을 맞춰왔지만, 복면 뒤 주인공이 누군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해 역설적으로 시청자와 공감대

를 형성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황금라카 두통췌네’처럼 ‘양갈진 백 고양이’ ‘꽃피는 오후’ ‘날아라 태권소년’ ‘우아한 석고부인’ ‘정확하게 반 갈췌네’ ‘남산위의 저 소나무’ ‘목 돌아간 체리’ ‘깃털달린 오렌지’ 등 출연자들의 특색 튀는 네네임도 또 다른 재미를 안긴다. 연출자 민철기 PD는 “가면을 쓴 가수가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라면서 “가면 속 주인공의 얼굴이 공개돼 모두가 공감하기까지 과정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가면을 쓰고 노래대결을 벌이는 독특한 콘셉트의 ‘복면가왕’은 숨은 실력자들을 보는 재미에, 가면 속 얼굴을 맞히는 재미가 더해지면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MBC

싸이, 5월 대학축제 전국 투어 나선다

“초심으로” 20여개 대학 순회

가수 싸이(사진)가 오랜만에 대학축제 무대에 선다. ‘강남스타일’의 엄청난 히트로 몸값 높아진 ‘국제가수’인 데다, 좀처럼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5월 ‘전국 대학축제 투어’에 나서기로 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싸이는 5월 중순부터 전국 20여개 대학을 순회한다. 2012년 ‘강남스타일’ 이후 3년 만이다. 개런티도 다른 가수들과 비슷한 ‘합리적 가격’을 받기로 했다. 싸이가 대학축제 투어에 나선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무대를 즐기면서 에너지를 얻고, 영감을 받아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무대제질’이지만, 지난 몇 년간 ‘강남스타일’의 히트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새 음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좋은 곡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새 앨범이 한정 없이 미뤄지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전의 싸이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프로듀서는 “지



난 1년여간 싸이의 심적 부담이 너무 컸다.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수는 23억건이 넘었고 대중의 기대도 너무 크다. ‘행오버’라는 완전 협합을 선보인 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의도였다. 작곡은 편안한 마음으로, 영감을 얻어 해야 되는데 부담감으로 작곡도 매우 힘든 작업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그에게 ‘모두 내려놓고 예전의 날라리 가수로 돌아가 편히 곡을 쓰라’고 했다. 싸이는 ‘난 무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요즘 무대에 못서 곡이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대학무대를 많이 다니면서 초심을 다시 느끼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핑클, 깜짝 회동...재결합설 모락모락~

옥주현, SNS 통해 “옛날 이야기 나눴다”

이효리와 옥주현, 이진, 성유리가 26일 깜짝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룹 핑클의 재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핑클의 네 멤버는 26일 서울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 저녁을 함께 했다. 이들은 만나거나 지인 동반 없이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네 사람이 자의에 따라 한 자리에 모인 건 2008년 연말 이효리 콘서트에서 핑클 무대를 꾸민 이후 7년 만이다. 이들은 평소 두 세 사람씩 자주 만나긴 했지만 멤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다. 이효리는 최근 미국 뉴욕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날 모임을 가졌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이들의 재결합 여부로 쏠린다. 요즘 지누션이 11년 만에 신곡을 내고, 구피도 6월쯤 원년 멤버로 10년 만에 새 음반을 내기로 하는 등 1990년대 인기그룹들의 재결합 바람이 불고 있어 핑클의 새 음반에 대한 기대도 높다. 옥주현은 27일 SNS를 통해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날 회동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진 이효리 옥주현 성유리(왼쪽부터)가 26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사진제공 | 포트럭주식회사

한때 핑클은 MBC ‘무한도전’의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출연을 검토했을 만큼 멤버들의 의지가 있어 재결합은 언제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번 회동은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핑클은 2005년 싱글 ‘포에버 핑클’ 이후 각 멤버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멤버들은 지금까지 ‘해체’란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5년 4월 28일>

제일제당, 20년전 할리우드 투자

한국의 감독과 배우가 할리우드에 진출한 것은 이제 떠들썩한 뉴스가 되지 못한다. 그만큼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그 여러 토대 중에 지금의 CJ, 옛 제일제당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1995년 오늘, 제일제당이 미국 드림웍스 SKG (드림웍스)에 3억 달러를 투자하며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아울러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드림웍스 SKG는 할리우드 ‘미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와 월트 디즈니 출신 제프리 카젠버그, 세계 음반업계 강자 데이비드 게펜 등과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세운 영상업체. 제일제당은 총 10억 달러의 자본금 중 3억 달러를 5년간 출자기로 하고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은 CJ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인 이재현 상무와 이미경 이사는 드림웍스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일제당은 드림웍스의 영화 및 비디오, 음반, TV프로그램 등의 아시아 배급 판권을 확보했다. 또 한국 콘텐츠의 해외 보급을 위해 드라마 ‘모래시계’의 김종학 PD 및 송지나 작가와 손잡고 제이콥을 설립했다. 당시는 드림웍스가 삼성과 먼저 투자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된 직후였다. 이 때문에 삼성의 제일제당 분리 문제와 맞물려 주요 뉴스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은 국내 대기업의 할리우드 진출이었다. 앞서 일본 소니 등이 할리우드에 자본을 투자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철수한 상황이었다. 제일제당은 할리우드의 영상 제작 능력 등을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상당기간 드림웍스와 합작했다.(지금은 드림웍스의 한국 배급 판권 사업만 남아 있다) 첫 작품은 1997년 11월 개봉한 ‘피스 메이커’. 이듬해 5월 ‘딥 임팩트’ 등이 흥행했다. 제일제당은 그 한 달 전 국내 첫 멀티플렉스 극장인 OGV강변의 문을 열기도 했다.

그해 11월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내한한 제프리 카젠버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할리우드에 아주 중요한 영화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극장가를 장악한 ‘어벤저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한국을 첫 개봉 무대로 삼은 것은 그 방증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빅 마우스

●“저도 나왔다. 감사하다.”(제국의아이들 광희) 28일 방송하는 KBS 2TV ‘1대100’ 최근 녹화에서, ‘무한도전’의 ‘식스맨’이 된 이후 소속사가 전용차량을 마련해줬다면,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다보니 여자가 됐다.”(가수 김예림)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레진코믹스 브이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타이틀곡 ‘알면 다쳐’ 등을 소개하며 더 아름다워진 비결을 묻자, ●“대전에 ‘장수상회’ 상영권이 너무 부족함.”(누리꾼 plo*****)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저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상영권 독점 속에서 영화 ‘장수상회’가 전국 380개관에서 누적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기사의 댓글 중.

냉장고셔츠 이거 하나면 올 여름 끝!

기능성 냉감티셔츠 5종 39,800원 100%국내생산



티셔츠5장
한꺼번에
39,800원

땀은 내쉬고 공기를 마시는 흡한·속건성 티셔츠, 자외선 차단 및 세균 및 각종 유해균 걱정 끝!

국내 생산 기능성 냉감티셔츠는 강력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 수분을 최대한 빨리 밖으로 배출하고, 무더운 여름철 땀·수분으로 발생되는 체온 상승효과를 억제함으로써 고온 다습한 날씨에도 항상 끈적임 없이 상쾌함을 유지시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세탁시에도 건조시간을 최소화하여 세탁 후 바로 착용이 가능할 정도의 건조성이 좋고 오염 물질도 간단한 세척으로 제거 쉽다. 마지 인입은 땀 한 착용감과 물에 뜰 정도로 가벼운 초경량 소재 사용으로 입는 순간부터 시원한 착용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100% 국내생산으로 품질이 뛰어나며 초경량 소재 사용으로 입는 순간부터 시원한 착용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제품 불만족시 일주일 이내 100% 교환, 환불을 보장한다.

사이즈 95, 100, 105, 110
티셔츠 5종 ₩149,000 → ₩3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 : 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 : 플룩스(이상재)



반바지 입고 출근할 수 없다면 이 바지를 입자!

땀과 열기는 싹~ 쿨링 바지 1 + 1 49,800원



네이비

차콜

블랙

남성들에게는 미관상 또는 예의상의 이유로 사회활동 시 반바지를 입을 수 없다. 이러한 남성들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시원한 여름 쿨링 바지는 시원한 원단을 적용하여 땀을 흡수후 빠르게 건조시키고, 쾌적함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으며 스관 소재로 정장용-레저용-일상복으로 모두 입을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일반 바지보다 활동성이 뛰어나다. 허리부분에 주름밴딩 정착으로 숨쉬는 바지 기능을 추가하여 30~70대 남성들에게 두루 인기를 끌고 있다. 신축성이 좋고 갈수록 습한 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계절 변화에 딱 맞는 상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균과 땀 냄새까지 억제하는 시원한 여름 쿨링 바지는 한여름 더위와 싸우며 일하시는 분들, 등산·낚시·골프 등 야외스포츠를 즐기는 남성분들에게 더욱더 안정맞춤인 바지이다.

사이즈 30, 32, 34, 36, 38, 40
여름용 기능성 쿨링바지 1 + 1 세트
₩198,000 → ₩4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 : 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 : 플룩스(이상재)